

‘그림책 너도 한번 만들어 볼래?’

진안군, 정지운 동화작가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화제

진안의 한 귀촌인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해 지역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7년 전 전국 동행면 봉곡마을에 정착한 정지운씨(42). 서울에서 태어난 그녀는 '우리동네 한바퀴' '수상한 너구리 아저씨' '영동한 발명가 따라와' '따로' 등을 펴낸 동화작가다.

정 작가는 전국도보 여행 중 우연히 들르게 된 동행면 봉곡마을 정취에 빠져 귀촌을 결심하여 7년째 살고 있다.



정지운 작가

그동안 자신의 재능을 기부해 진안군 홍보포스터, 축제포스터, 할머니들의 자서전, 시집 등 제작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다.

이런 활동을 토대로 '그림책을 사랑하는 어른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아이들과 그림책에 관심 있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그림책 너도 한번 만들어 볼래?'라는 주제로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진안

문화의집에서 진행되며 작가와의 만남, 상설 전시 및 체험, 작가의 작업과정 소개, 그림자극과 같은 특별 체험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특히 마을에서의 경험들을 토대로 자연과 인간이 잘 어울려 사는 마을을 동화책 속에 담아낸 '거북이 마을 시리즈'의 그림들이 이번에 전시 된다.

정지운 작가는 "스마트폰 등 다양한 미디어에 밀려 요즘 아이들에게서 동화책은 점점 멀어지고 버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진안을 배경으로 한 책들의 원화를 함께 보고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새로운 놀이 문화를 만들어 보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상전면, 이장-공직자 한마음대회 열려

진안군 상전면(면장 송준섭)은 지난 15일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17개 마을이장과 진안군청 문화체육과 직원 등이 함께 상전면 수변체육공원에서 한마음 대회를 가졌다.

한마음대회는 이장-공직자가 청·백담으로 나뉘어 투호, 고리끼기, 제기차기 등 민속 경기를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종석 이장협의회장은 "한마음 대회로 직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이해와 소통을 넓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준섭 면장은 "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조해주신 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고창서, 관내 인력사무소 방문 교통사고 예방 활동

고창경찰서(총경 박정환)는 인력 수송 차량운행이 많은 관내 인력사무소 19개소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인력을 태운 승합차량, 버스는 작업 시간을 맞추기 위한 과속운전과 탑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고창경찰은 인력차량 운행시간에 맞추어 관내 인력사무소에 19개소에 방문하여 업주와 운전자 등 대상으로 차량운전시 주의사항, 안전벨트 착용, 차량 상시점검 등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창경찰서는 "인력 수송차량 운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순간의 실수가 대형사고로 직결된다. 사람을 많이 태운 차량은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단속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2019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국민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무주국유림관리소 직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30여명이 참여해 지난 15일 진안군 마이산 도립공원에서 등산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산 시 인화물질 휴대안하기 등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스마트 산림재해앱으로 산불신고 방법, 산림내 흡연 및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역 등을 안내하면서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등산로 일대 쓰레기 줍기 등 산지정화 활동도 실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오수면새마을부녀회, 사랑음 고추장 담그기 진행

임실군 오수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옥남)은 최근 홀몸어르신 및 저소득세대 지원을 위해 사랑음(愛)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녀회원 10여명이 참여해 고추장을 손수 담갔으며, 담근 고추장은 홀몸어르신 및 저소득층 100세대에 회원들이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옥남 회장은 "새마을부녀회원들의 사랑이 담긴 고추장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백종완 오수면장은 "봉사일선에서 묵묵히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새마을부녀회원들의 봉사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한일장신대 사격부, 국제대회서 '금빛 총성'

한일장신대학교 사격부가 국제대회에서 '금빛 총성'을 울렸다.

지난 15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4회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에서 한일장신대 사격부 성윤호 선수가 금메달 3개를 목에 거는 등 맹활약했다고 전했다.

성 선수는 자유권총 50m 개인전과 단체전, 10m 공기권총 주니어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10m 공기권총(혼성) 주니어에서는 은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성윤호는 자유권총 50m 개인전과 단체전에서는 각각 556점과 1632점을 기록해 참가 선수 중 최고 기록을 세웠다.

/장흥=성 기자

남원경찰, 남원초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지난 15일 남원초에서 1학년 80여명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날 교육에서는 교통안전 애니메이션 시청 후 OX퀴즈 및 직접 실습하는 한편, 영상을 통해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차를 보며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서다-보다-걸다' 방어보행 3원칙을 설명했다.

한편, 박노근 경비교통과장은 "경찰이 추진하는 정정치안을 토대로 교통약자 어린이를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119신고 요령 홍보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가 119신고 시에 전화뿐 아니라, 119신고 앱·영상통화·문자(SMS, MMS)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이 서비스는 재난 상황을 구두로만 설명해야 했던 기존 음성 신고방식에서 영상통화, 문자, 앱을 통해 사진, 동영상 신고, 사고위치(GPS 활성화)까지 전달할 수 있으며, 청각장애인이거나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도 수어 또는 신고내용을 종이에 적어도 가능하다.

119신고앱은 play store 접속(또는 App store)-119신고 검색-앱 설치-실행 순으로 설치하면 된다. 김환철 현장지휘조사팀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로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119신고 앱 설치를 권유해 보자"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전북도청서 무주반딧불사과 나눔 행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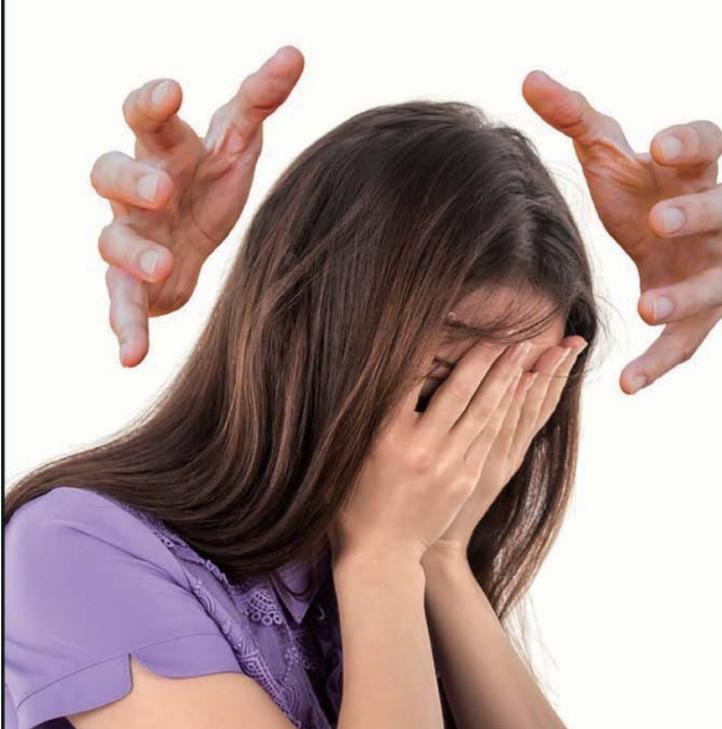
무주군은 지난 15일 전북도청에서 반딧불사과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무주 대표 농산물인 반딧불사과를 알리며 판로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승열 무주군의회의장을 비롯한 농협 관계자들과 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 읍면연합회장 등 20여 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도청 방문 민원인들과 직원들에게 개별 포장된 반딧불사과를 전달(1,500개)했으며 반딧불사이버장터와 무주군 관광 홍보물을 함께 나눠줘 호응을 얻었다.

시민 이 모 씨는 "도청에 불 일이 있어서 왔다가 황재한 기분"이라며 "반딧불사과 얘기가 들렸었는데 한 번 먹어 봐야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번호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